

#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King's Message of  
Sunseong-myeongryang-gyeongje-honghwa-juari-gongsin

朴文烈 (Park, Moon-Year)\*

## ◁ 목 차 ▷

1. 緒言	3.1 功臣教書의 書誌와 形態
2. 仁山府院君의 生涯와 功臣勳	3.2 功臣教書의 原文
2.1 仁山府院君의 生涯	3.3 功臣教書의 分析
2.2 仁山府院君의 功臣勳	4. 結論
3.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	<참고문헌>

## < 초 록 >

본 研究는 仁山府院君 洪允成(1425-1475)의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에 관하여 考察한 것으로 그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佐理功臣은 成宗 2년(1471)에 成宗이 王위에 올라 자신을 추대하여 자신을 잘 보좌하고 政치를 잘 하도록 한 데에 공을 세운 75인의 臣民들에게 錄勳된 功臣號이며,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는 佐理공신 1등에게 사급된 功臣教書이다.

(2) 仁山府院君 洪允成은 조선시대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懷仁이며, 그는 단종 3년(1455) 정월에 ‘輸忠協策靖難功臣’에, 世宗 4년(1458) 6월에 ‘推忠左翼功臣’에, 成宗 2년(1471) 3월에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에 녹훈된 바 있다.

(3) 仁山부원군의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는 成宗 3년(1472) 6월에 仁山부원군에게 사급된 1축의 公신교서로 頭部에 功臣號와 受給者의 職銜 및 姓名이 기록되어 있고 本文에는 仁山부원군의 愛國觀과 功績에 대한 致辭와 褒賞規定 및 等級別 功臣의 名單이 기록되어 있으며, 尾部에는 본 功臣教書를 賜給한 時期가 기록되어 있다.

(4) 仁山부원군의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는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要語: 洪允成, 仁山府院君, 佐理功臣,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

\* 淸州大學校 人文大學 文化情報學部 文獻情報學專攻 教授(parkmoon@cju.ac.kr)  
접수일: 2011년 8월 17일 최초심사일: 2011년 9월 12일 심사완료일: 2011년 9월 15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King's Message of Sunseong-myeongryang-gyeongje-honghwa-jwari-gongsi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Jwari-gongsin is the title granted to 75 people who enthroned Seongjong as King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King's Message of Sunseong-myeongryang-gyeongje-honghwa-jwari-gongsin* is the certificate granted to those participants with the first grade of the Jwari-gongsin.

(2) Hong Yun-Seong, Insan-buwongun was one of the civil minister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he was granted such titles as Suchung-hyeopchaek-jeongnan-gongsin in January, 1455(the 3<sup>rd</sup> year of King Danjong's reign), Chuchung-jwaik-gongsin in June, 1458(the 4<sup>th</sup> year of King Sejo's reign), and Sunseong-myeongryang-gyeongje-honghwa-jwari-gongsin in March, 1471 (the 2<sup>nd</sup> year of King Seongjong's reign).

(3) The *King's Message of Sunseong-myeongryang-gyeongje-honghwa-jwari-gongsin* in a scroll, was granted to Insan-buwongun in June, 1472 (Seongjong 3). In its beginning, the title of this statement and the name of the grantee are recorded. In its main text, recorded are the words of praise for his patriotic spirit and distinguished service, the criteria of rewards, and all the names of Jwari-gongsins, and at the end the granting date is listed.

(4) The *King's Message of Sunseong-myeongryang-gyeongje-honghwa-jwari-gongsin* for Insan-buwongun has been kept in good condition, so it seems worth being designated and preserved as a national cultural property.

Key words: Insan-buwongun, Hong Yun-Seong, Jwari-gongsin,  
Sunseong-myeongryang-gyeongje-honghwa-jwari-gongsin,  
*King's Message of*  
*Sunseong-myeongryang-gyeongje-honghwa-jwari-gongsin*

## 1. 緒 言

功臣은 국가나 왕실을 위하여 功을 세운 인물을 호칭하는 것이며, 功臣教書나 功臣錄券은 공신들에게 賜給되는 공신의 證明書이다.

功臣制度는 중국의 唐朝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중국의 공신제도를 受容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발전시켜 왔던 듯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의 공신제도는 고려시대 초기부터 점차 제도화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미 우리의 실정에 부합하는 공신제도가 확립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의 성종은 자신을 국왕으로 추대하여 정치를 잘 하도록 보좌한 75인의 인물들에게 그 공적에 따라 1·2·3·4등으로 구분하여 佐理功臣으로 錄勳<sup>1)</sup>하고 각각에게 功臣教書を 사급한 바 있다.

筆者는 최근 佐理功臣 제1등에 녹훈된 仁山府院君 洪允成(1425-1475)의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sup>2)</sup>를 목견한 바 있다. 지금까지 學界에 보고된 좌리공신교서는 좌리공신 제3등인 延原君 李崇元(1428-1491)에게 사급된 <純誠明亮佐理功臣教書>(보물 제651-2호) 1축과 좌리공신 제4등인 月川君 金吉通(1408-1473)에게 사급된 <純誠佐理功臣教書>(보물 제716호) 1축이 전해지고 있을 뿐<sup>3)4)</sup>이다.

본 연구는 최근에 발견된 人山부원군의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를 중심으로 학술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를 考究함으로써 조선시대 전기의 功臣研究는 물론 본 教書의 文化財指定을 위한 기초연구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年 3月 28(辛丑)日條.

賜佐理功臣號 一等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 二等純誠明亮經濟佐理 三等純誠明亮佐理 四等純誠佐理.

2) 본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는 忠北 清州市 興德區 社稷2洞 732-11의 金在泳 선생의 所藏이다.

3) 朴文烈, “月川君 金吉通 『純誠佐理功臣錄券』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31輯(2005. 9). 5-32.

4) 國家記錄遺產: <<http://www.memorykorea.go.kr/>>.

## 2. 仁山府院君의 生涯와 功臣勳

### 2.1 仁山府院君의 生涯

인산부원군 홍윤성(1425-1475)은 조선시대 전기의 文臣으로 本貫은 懷仁<sup>5)</sup>이다. 그의 初名은 禹成이고 字는 守翁이며 號는 傾海 혹은 領海이고 諡號는 威平이다.

『南陽洪氏世譜』<sup>6)7)</sup>와 『南陽洪氏文獻錄』<sup>8)</sup> 등을 중심으로 인산부원군의 系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1> 仁山府院君 洪允成의 系譜

洪天河(南陽先始祖) - 文命(2) - 興夏(3) - 陟海(4) - 得泳(5) - 協理(6) - 愼濟(7) - 貢禹(8) - 警汝(9) - 夢疇(10) - 殷悅(11, 南陽始祖) - 東周(12, 南2) - 毅(13, 南3) - 灝(14, 南4) - 德升(15, 南5) - 灌(16, 南6) - 至柔(17, 南7) - 倫鉞(18, 南8) - 延甫(19, 南9, 懷仁始祖) - 容(20, 南10, 懷2) - 齊年(21, 南11, 懷3) - 允成(22, 禹成, 南12, 懷4) - 珍(23, 南13, 懷2, 經歷公派) ...
--

인산부원군은 懷仁 洪氏의 始祖인 洪延甫(?-?)의 증손이고 祖父는 洪容(?-?)이며, 부친은 洪齊年(?-?)이고 아들은 洪珍(?-?)이다.

5) 懷仁洪氏: 언제인지는 자세하지 않으나 後에 南陽洪氏 唐洪系와 合譜되었다고 한다.  
 6) 南陽 洪氏는 唐朝 太宗이 8명의 學士를 文化使節로 高句麗에 派遣할 때 그 중의 한 사람으로 들어온 洪天河의 후손으로 전한다. 洪天河는 高句麗에 들어와 儒學을 가르치고 文化를 널리 개척했으며, 高句麗가 망하고 삼한 통합에 따라 신라 善德女王朝에 儒學의 발전에 공을 세워 文武王朝에 唐城伯에 봉해지고, 神武王이 太子太師로 추대했으며 孝昭王은 唐城侯를 삼았다고 한다. 그 후 唐城의 地名이 南陽으로 개칭됨에 따라 후손들은 南陽을 本貫으로 삼고 高麗에서 三重大匡·太師를 지낸 洪殷悅을 1世祖로 하여 世系를 이어오고 있다.  
 7) 南陽洪氏益山君派衿川公宗會 編, 『南陽洪氏益山君派衿川公世譜』 (大田: 回想社, 2006), 82.  
 8) 南陽洪氏鶴谷派宗親會 編, 『南陽洪氏文獻錄』 (唐津: 美文出版社, 1992), 1232.

인산부원군은 문종 즉위년(1450)에 秋場文科에 급제하여 承文院의 副正字가 되고 武才가 뛰어나 특히 司僕寺主簿를 겸임하였으며, 이듬해(1451) 漢城府參軍·通禮門奉禮郎 등을 역임하였다. 首陽大君(1417-1468)이 문종의 명을 받아 『陣書』를 찬술할 때 佐郎으로서 참여하였으며, 문종이 薨去하고 어린 단종이 즉위(1452)하자 수양대군에게 임금의 어리고 나라가 위태하니 정국을 바로잡을 큰일을 일으켜야 된다고 進言하며 權孳(1416-1465)을 謀士로 천거하였다.

<表 2> 仁山府院君 洪允成의 行歷

年代	朝代	月日	年歲	內容	備考
1425	世宗 07	-	01	出生하다	9)
1450	文宗 卽	-	26	秋場文科에 及第하여 漢城參軍을 거쳐 通禮門奉禮郎·司僕注簿 등을 역임하다	10)
1451	文宗 01	10 24	27	新定한 『陣說』을 校正하다	11)
1452	端宗 卽	07 15	28	變故가 일어날 것을 豫見하다	12)
		-		世祖에게 權孳를 推薦하다	13)
		07 25		世祖에게 變에 對處할  준비를 建議하다	14)

- 9) 『成宗實錄』의 仁山府院君卒記에 “仁山府院君洪允成卒 … 至是病足瘡而卒 年五十一”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成宗 6年 9月 8(甲寅)日條.> 라는 기록에 의거하여 逆算하였다.
- 1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6年 9月 8(甲寅)日條.  
… 景泰庚午 中文科 選補承文院副正字 以有武才 特兼司僕職 … 辛未, 超拜漢城參軍 歷通禮門奉禮郎·司僕注簿 世祖在潛邸 文宗命撰陣書 允成以郎佐與焉 …
- 1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文宗 1年 10月 24(己丑)日條.  
上嘗新定陣說 附以勝敗勇怯之勢 撰成儀注 出示大臣 俾加刪潤 … 其後 又命緯地與權孳·鄭種·金有銑·洪允成等 更加校正 累日乃定 多採宗瑞議 首陽大君(上諱)實掌此事.
- 1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端宗 卽位年 7月 15(丙午)日條.  
… 先時 洪允成謁世祖曰 賢老密告執政 以成文治出入臨瀛家 不可在京 出爲邊郡守令.
- 1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6年 9月 8(甲寅)日條.  
… 及文宗昇遐 世祖以主少 國危爲憂 見允成奇之 微示以意 允成首薦權孳 …
- 1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端宗 卽位年 7月 25(丙辰)日條.  
洪允成謁世祖曰 公以英雄之才 名聞素著 今世宗·文宗相繼賓天 幼沖在位 忠邪混淆 朝政紊亂 公雖空守小節 一加之以惡名 則後世誰知者 此正不得不處變之時也 世祖曰 天道益謙 人道好謙 不如順受其正耳 若能倡義 天人助順 必有從風趨附者矣 遲速變化 何勢不可 子能從我 忘妻子·死社稷乎 允成曰 是吾心也 士爲知己死 妻子之累 何足論耶 世祖

1453	端宗 01	10 15	29	靖亂功臣 제2등에 錄動되다	15)
		11 08		輸忠協策靖難功臣으로 錄動되다	16)
1454	端宗 02	06 08	30	掌筭에 除授되다	17)
1455	端宗 03	01 24	31	靖難功臣 제2등의 敍서가 賜給되다	18)
	世祖 01	+6 28		禮曹參議에 除授되다	19)
		08 16		功臣宴에 參與하다	20)
		11 12		佐翼功臣 제3등에 錄動되다	21)
		12 04		推忠協策靖亂佐翼功臣禮曹參議에 授受되다	22)
1456	世祖 02	06 04	32	禮曹參判에 除授되다	23)
		09 08		兵曹參判에 除授되다	24)

曰 與子戲耳.

- 1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端宗 元年 10月 15(戊戌)日條.  
論靖亂之功 以世祖及鄭麟趾 … 權肇·韓明澮爲一等 權遵·申叔舟 … 洪允成·郭連城·嚴自治·田昞爲二等 李興商·李禮長·成三問 … 洪純老爲三等 三品以下 超三資.
- 1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端宗 元年 11月 8(庚申)日條.  
桃源君(懿敬王諱)陞興祿大夫 朴從愚爲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 … 奉石柱·尹士昞·柳河·柳洙·洪允成·郭連城輸忠協策靖難功臣 … 並陞授東西班職 有差.
- 1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端宗 2年 6月 8(己丑)日條.  
以權蹲爲漢城府尹 … 李堰守執義 洪允成·李承召掌令 曹變安·柳子晃持平.
- 1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端宗 3年 1月 24(庚午)日條.  
教輸忠協策靖難功臣威毅將軍守忠佐侍衛司大護軍洪允成曰 才俊者 能成茂績 功茂者 必膺異恩 行賞之規 自古有典 惟爾稟氣雄偉 秉德眞純 學通經史之文 識達古今之變 詞華出乎類 名既擅於高科 武藝超乎群 職常兼於司僕 惟才之卓 如爾者稀 日者至親塔幸我幼孤 潛圖不軌 乃與姦臣皇甫仁·金宗瑞·李穰·閔仲·趙克寬等 內要寺人 外結邊將 陰聚不逞之輩 潛輸遠郡之兵 禍變迫於須臾 宗社幾乎顛覆 于時叔父首陽大君炳幾先 首舉大義 爾乃協謀 奔走宣力 剗兇堅於跬步之間 底國脈於磐石之固 勳庸之盛 前古罕聞 爰策勳爲二等 爵其父母及妻 宥及永世 仍賜田一百五十結·奴婢十五口·馬一匹·白銀二十五兩·表裏一段 至可領也 於戲 拔去兇邪 既能勘定禍亂 勤勞終始 庶幾永輔盈成.
- 1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1年 閏6月 28(壬申)日條.  
以黃守身爲議政府右參贊 權孟孫藝文大提學 … 洪允成禮曹參議 尹士昞刑曹參議 ….
- 2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1年 8月 16(己未)日條.  
上幸昌德宮 謁魯山 開國·定社·佐命·靖難四功臣等 進盟簇于上及魯山 上命分賜功臣等 仍設宴 ….
- 2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1年 11月 12(癸未)日條.  
傳旨吏曹曰 禮曹參議洪允成錄佐翼功臣三等.
- 2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1年 12月 4(乙巳)日條.  
以洪允成爲推忠協策靖難佐翼功臣禮曹參議 沈決僉知中樞院事 ….
- 2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2年 6月 4(壬寅)日條.  
以成奉祖工曹判書 洪允成禮曹參判 洪元用戶曹參判 ….

		10 18		禮曹參判에 除授되다	25)
1457	世祖 03	01 18	33	禮曹判書에 除授되다	26)
		03 03		『陣法』改定을 論議하다	27)
		07 21		知中樞院事に 授受되다	28)
		09 05		左廂大將에 除授되다	29)
		09 19		知中樞院事に 除授되다	30)
1458	世祖 04	02 12	34	功臣 仲朔宴에서 詩를 바치다	31)
		06 29		佐翼功臣 제3등의 敎書가 賜給되다	32)
		07 11		母喪 中에 婚姻하러다 核聞되다	33)

- 2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2年 9月 8(乙亥)日條.  
以李仁孫·李澄石·申叔舟判中樞院事 … 元孝然禮曹參判 洪允成兵曹參判 ….
- 2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2年 10月 18(甲寅)日條.  
以鄭昌孫爲議政府右議政 尹師路領中樞院事 … 具致寬兵曹參判 洪允成禮曹參判 ….
- 2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3年 1月 18(癸未)日條.  
以朴仲孫爲議政府右參贊 洪允成禮曹判書 閔瑗禮曹參判 金末藝文提學 ….
- 2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3年 3月 3(丙寅)日條.  
御思政殿 命召領中樞院事尹師路·議政府右贊成申叔舟·兵曹判書洪達孫·禮曹判書洪允成 … 議改定陣法.
- 2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3年 7月 21(壬午)日條.  
以權蹲爲戶曹判書 … 洪允成起復知中樞院事·慶尙右道都節制使 ….
- 2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3年 9月 5(丙寅)日條.  
命都節制使洪允成 授大將象牙牌 爲左廂大將.
- 3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3年 9月 19(庚辰)日條.  
以朴臺·楊汀·洪允成知中樞院事 金何判漢城府事 金淳吏曹參判 黃孝源戶曹參判 ….
- 3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4年 2月 12(辛丑)日條.  
御思政殿 設功臣仲朔宴 王世子及宗親·宰樞·功臣等侍 … 洪允成詩曰 天眷我聖主 濟時開太平 經綸貽燕翼 駕馭擡豪英 盛業光前烈 元勛贊守成 自慙無寸補 何幸與動盟 寵遇踰麟閣 華筵享鹿茸 重瞳臨咫尺 大訓更丁寧 奉玩奎章爛 思輸太馬誠 昭哉戒來許 終始保功名 ….
- 3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4年 6月 29(乙酉)日條.  
敎洪允成曰 有非常之才者 必成不世之功 有不世之功者 宜受莫大之報 卿風姿挺特 器度雄偉 文武之才 卓然不群 予在潛邸 一見卿 知其爲非常之材 遂擬爲心腹 卿亦赤心在我 知無不爲 頃值國家之疑危 宗戚權姦相煽爲變 將不利於社稷 予時養養 欲事剷除 卿能密贊籌策 出死力以捍衛之 靖亂之功 卿實居多 自予輔政以來 功高權重 爲人所忌 兇孽尙存 相繼爲變 卿能左右先後 弘濟艱難 嗚呼 自古有國家者 不有豪傑之士 感會知遇 同心協力 誰與成厥功哉 予惟忝至今日 休 繫[繫]卿是賴 寔用曰嘉 肆策勳爲佐翼三等功臣 爵其父母及妻 宥及永世 仍賜田八十結·奴婢八口·白銀二十五兩·表裏一段·內廐馬一匹 至可領也 於戲 撐天貫日之忠 心德如一 礪山帶河之誓 終始難忘.
- 3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4年 7月 11(丙申)日條.

1459	世祖 05	01 20	35	禮曹判書에 除授되다	34)
		02 10		公에게 「陣書」를 고쳐 編纂하다	35)
		02 20		禮曹判書에 除授되다	36)
		07 02		慶尙道都巡察使에 除授되다	37)
		12 28		「武經」과 兵書를 講하다	38)
1460	世祖 06	01 28	36	禮曹判書에 除授되다	39)
		02 05		咸吉道助戰元帥에 除授되다	40)
		05 24		禮曹判書에 除授되다	41)
		07 27		江原咸吉道都體察使 宣慰副使에 授되다	42)
		10 18		崇政大夫에 加資되다	43)
1461	世祖 07	03 24	37	「北征錄」을 校正하여 印刷하다	44)
1462	世祖 08	10 13	38	判中樞院事에 除授되다	45)

司憲府啓 洪允成欲奸故護軍金汗女子 於本月初七日強宿汗家 汗妻率其女逃匿隣舍 允成以大相 冒喪圖婚 汚毀綱常 請覈之 …

- 3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5年 1月 20(癸卯)日條.  
以洪允成爲禮曹判書 李承孫知中樞院事 柳洙刑曹參判 …
- 3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5年 2月 10(乙亥)日條.  
御慶會樓下觀射 設酌 王世子進酒 … 召禮曹判書洪允成 令改撰陣書.
- 3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5年 2月 20(癸酉)日條.  
以茂生爲宣城君 隆生貞石正 堅信松峴正 洪允成禮曹判書 朴楨司諫院正言.
- 3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5年 7月 2(辛巳)日條.  
以領中樞院事李季旬爲京畿都體察使 … 禮曹判書洪允成慶尙道都巡察使 …
- 3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5年 12月 28(丙子)日條.  
命吏曹判書具致寬·禮曹判書洪允成·兵曹參判金碩等 講武臣兵書.
- 3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6年 1月 28(丙午)日條.  
以寧爲樂安卿 … 洪允成禮曹判書 朴臺中樞院事 鄭守忠河原君 …
- 4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6年 2月 5(壬子)日條.  
助戰元帥洪允成辭 …
- 4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6年 5月 24(己亥)日條.  
以姜孟卿領議政 申叔舟左議政 權擘右議政 … 洪允成禮曹判書 …
- 4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6年 7月 27(辛丑)日條.  
命召申叔舟·洪允成 引見叔舟於交泰殿 … 遣田昞議於姜孟卿·權擘之家 卽以叔舟爲江原咸吉道都體察使宣慰使 洪允成爲副使 …
- 4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6年 10月 18(庚申)日條.  
錄北征軍功 禮曹判書洪允成加崇政 咸吉道都觀察使鄭軾超資憲 …
- 4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7年 3月 24(乙丑)日條.  
召左議政申叔舟·禮曹判書洪允成 … 會賓廳 讎校北征錄 命河城尉鄭顯祖質諸叔舟等 以正訛謬 上曰 今可印乎 印則印幾件乎 叔舟啓 可印數百件 … 上曰 然.
- 4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8年 10月 13(甲戌)日條.

1463	世祖 09	03 14	39	仁山君에 封爵되다	46)
		04 05		世子左賓客에 除授되다	47)
1464	世祖 10	03 25	40	兼判禮曹事에 除授되다	48)
		05 01		仁山君 兼判禮曹事에 除授되다	49)
		06 12		圓覺寺法堂의 靑瓦에 대해 報告하다	50)
		09 28		講武宣傳官에 除授되다	51)
		11 08		父親이 正憲大夫 同知中樞院事에 除授되다	52)
1466	世祖 12	12 24	42	仁山君에 除授되다	53)
1467	世祖 13	01 09	43	兼五衛都摠管에 除授되다	54)
		05 20		右議政에 除授되다	55)
		07 25		國王에게 曉諭되다	56)
		09 20		仁山君에 除授되다	57)

洪允成判中樞院事 李克培禮曹判書 李石亨判漢城府事 …

- 4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9年 3月 14(癸卯)日條.  
以沈決判中樞院事 洪允成仁山君 魚孝瞻吏曹判書 朴元亨禮曹判書 …
- 4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9年 4月 5(甲子)日條.  
以仁山君洪允成爲世子左賓客 宣炯仁壽府尹 李施愛判會寧府尹.
- 4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10年 3月 25(戊寅)日條.  
以仁山君洪允成兼判禮曹事.
- 4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10年 5月 1(癸丑)日條.  
以洪允成爲仁山君兼判禮曹事 崔恒左參贊 尹子雲兵曹判書 李承召藝文提學 …
- 5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10年 6月 12(甲午)日條.  
召瓦窯提調仁山君洪允成 議圓覺寺法堂所蓋靑瓦 凡八萬張 燔造所入甚鉅.
- 5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10年 9月 28(戊寅)日條.  
以領議政申叔舟·左議政具致寬·仁山君洪允成 … 都承旨盧思慎等爲講武宣傳官 …
- 5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10年 11月 8(丁巳)日條.  
以洪濟年爲正憲大夫同知中樞院事 … 濟年 允成之父也 以功臣父得此職.
- 5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12年 12月 24(辛酉)日條.  
以洪允成爲仁山君 李季町兼執義 先是 允成丁憂 起復爲節度使 其時嘗至一家宿 其家人以尊我處子發訴 命劾允成 其家人坐誣訴 竟爲允成所畜.
- 5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13年 1月 9(丙子)日條.  
以龜城君浚·仁山君洪允成兼五衛都摠管 鄭沃卿兼司憲府執義 王循禮行崇義殿使.
- 5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13年 5月 20(甲申)日條.  
以沈滄領議政 崔恒左議政 洪允成右議政 黃守身南原君 春陽君徠兵曹參判 …
- 5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13年 7月 25(乙亥)日條.  
御思政殿 … 設酌 又命允成進酒 謂曰 卿之所失 在好爲誇大 是已非人 作氣勢以侮人 二事 卿其慎之勿如是也 … 允成爲人強悍暴戾 好憑勢作威 故有是戒.
- 5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13年 9月 20(壬午)日條.  
… 崔恒領議政 曹錫文左議政 康純右議政山陽君 洪允成仁山君 沈決中樞府判事 …

		09 26		<刑典>을 讎校하다	58)
1469	睿宗 01	02 03	45	謝恩使에 除授되다	59)
		+2 10		佐議政에 除授되다	60)
		08 22		領議政에 除授되다	61)
1470	成宗 01	02 11	46	<戶典>·<吏典>을 校正하다	62)
		04 06		大匡輔國崇祿大夫 仁山府院君에 遞封되다	63)
1471	成宗 02	03 28	47	佐理功臣의 稱號가 賜給되다	64)
1472	成宗 03	02 01	48	堤堰體察使에 除授되다	65)
		07 03		佐理功臣敎書가 賜給되다	66)
1474	成宗 05	04 08	50	藝文館員의 學問振作을 建議하다	67)
		05 15		山陵都監都提調에 除授되다	68)

- 5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13年 9月 26(戊子)日條.  
命銀川君躋·玉山君躋…綾城君具致寬·領議政崔恒·仁山君洪允成…讎校新制刑典.
- 5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睿宗 1年 2月 3(戊子)日條.  
命賜謝恩使仁山君洪允成貂皮冠·黑草笠各一頂…
- 6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睿宗 1年 閏2月 10(乙丑)日條.  
以洪允成爲議政府左議政 尹子雲右議政 金碩上洛君 尹士盼中樞府判事…
- 6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睿宗 1年 8月 22(癸酉)日條.  
以洪允成爲議政府領議政 尹子雲左議政 金國光右議政 韓明滄上黨君…
- 6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成宗 1年 2月 11(庚申)日條.  
命召蓬原君鄭昌孫·高靈君申叔舟·上黨君韓明滄·綾城君具致寬·青松君沈滄·寧城君崔恒·領議政洪允成·左議政尹子雲·上洛君金碩·兼吏曹判書韓繼美·戶曹判書徐居正 校定戶典·吏典.
- 6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成宗 1年 4月 6(甲寅)日條.  
以洪允成爲大匡輔國仁山君 尹子雲大匡輔國議政府領議政…
- 6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成宗 2年 3月 28(辛丑)日條.  
賜佐理功臣號 一等曰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 二等曰純誠明亮經濟佐理 三等曰純誠明亮佐理 四等曰純誠佐理.
- 6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成宗 3年 2月 1(戊辰)日條.  
司諫院正言金季衡來啓曰 遣堤堰體察使洪允成于忠清·全羅兩道 臣以爲 今農務方殷 民無小暇 伏願迎送 不無騷擾之弊 且今雖往審 必不及今年之灌溉矣 請勿遣 上曰 大臣所至 安有弊事 今雖不及 亦可備明年之用也.
- 6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成宗 3年 7月 3(戊戌)日條.  
上御仁政殿 設飲福宴 仍賜佐理功臣錄券 諸享官及宗宰孝寧大君補等·河東府院君鄭麟趾等入侍 倭人可臥老等亦與焉 宴將畢 命賜倭人物有差.
- 6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成宗 5年 4月 8(壬戌)日條.  
御經筵 講訖…領事洪允成啓曰 臣曾請依世宗朝故事 使藝文館員就山寺讀書 懿旨以儒生不可上寺 不許 如申叔舟亦以集賢殿員 讀書山寺者也 大抵文章 必專業然後有成 但今見任藝文者 或有不稱 更加精選授之 以此陞敘 以專其業 上曰 當稟于大妃.

1475	成宗 06	09 08	51	足疖으로 卒去하다	69)
1486	成宗 17	02 26	+11	부인 金氏에게 爵帖이 하사되다	70)
1506	燕山 12	02 10	+31	집이 張淑容에게 하사되다	71)

단종 원년(1453)에 수양대군이 단종의 補佐勢力인 皇甫仁(?-1453)·金宗瑞(1383-1453) 등 원로대신을 살해하고 제거하는 癸酉靖難(1453)에 적극 가담하고 협력하여 靖難功臣 제2등에 녹훈되었으며, 이어서 掌筭을 거쳐 단종 3년(1455)에 判司僕寺事가 되었다.

동년(1455) 윤6월에 세조가 즉위하자 禮曹參議에 오르고 세조의 즉위를 보좌한 공으로 佐翼功臣 제3등이 되어 參判에 승진하고 仁山君에 책봉되었다. 세조 3년(1457)에 禮曹判書·慶尙右道都節制使를 역임하고 세조 5년(1459)에 다시 禮曹判書에 임명되었다. 세조 6년(1460)에 毛憐衛의 野人인 女眞族이 반란을 일으키자 申叔舟(1417-1475)의 副將이 되어 이를 토벌하고 세조 13년(1467)에

- 6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5年 4月 15(己巳)日條.  
以 … 仁山府院君洪允成·上洛府院君金碩·茂松府院君尹子雲爲山陵都監都提調 …
- 6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6年 9月 8(甲寅)日條.  
仁山府院君洪允成卒 輟朝·弔祭·禮葬如例 允成字守翁 懷仁縣人也 景泰庚午 中文科選補承文院副正字 以有武才 特兼司僕職 辛未超拜漢城參軍 歷通禮門奉禮郎·司僕注簿 世祖在潛邸 文宗命撰陣書 允成以郎佐與焉 及文宗昇遐 世祖以主少 國危爲憂 見允成奇之 微示以意 允成首薦權擧 癸酉世祖靖難 賜輸忠協策靖難功臣之號 陞本寺判官 甲戌又陞少尹 尋遷司憲掌令 乙亥判司僕寺事 世祖卽位 授通政禮曹參議 又賜佐翼功臣之號 丙子階嘉善陞參判封仁山君 俄遷兵曹 又陞嘉靖 復拜禮曹 天順丁丑陞資憲判書 是年丁母憂 起復爲慶尙右道都節制使 己卯復拜禮曹判書 庚辰加正憲 時毛憐衛浪甫軍叛 世祖以申叔舟爲將 允成爲副以討之 及還加崇政 甲申以仁山君兼判禮曹 成化丁亥拜大匡輔國崇祿議政府右議政 己丑陞左議政 睿宗受誥命 充謝恩使如京 及還陞領議政 庚寅遞封仁山府院君 辛卯賜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之號 至是病足疖而卒 年五十一 謚威平猛以剛果威 克定禍亂平 允成狀貌雄偉 膂力絶人 少窮貨 力學登第 人以才雄待之 及遇世祖 寵眷甚隆 知允成素貧 多賜以良田 允成務殖貨 鴻山農莊積穀鉅萬 奴僕憑勢橫恣 少有違逆 或杖殺之 世祖幸溫陽湯沐 有士族婦尹氏上言 訴其夫爲允成奴所殺 命有司鞠之 輒其奴 不問允成 司憲府彈啓曰 允成龜踈狂妄之態 偃蹇跋扈之狀 聖鑑所洞照 時謂之正中其失 侍妾·奴僕少違忤 輒不貸 至有用弓劍 時妻南氏無子 同縣士族金自謀有女 勒娶之.
- 7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17年 2月 26(壬寅)日條.  
傳旨吏曹 給仁山府院君洪允成妻金氏爵牒.
- 7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12年 2月 10(庚申)日條.  
傳曰 洪允成家及楊山副守嗣家 給張淑容.

右議政에 올랐다. 이듬해(1468) 세조가 薨去하자 申叔舟·韓明澮(1415-1478) 등과 함께 院相이 되어 庶政을 처결하였다. 예종 원년(1469)에 좌의정이 되어 謝恩使로 明朝에 다녀와 領議政으로 승진하였다. 성종 원년(1470)에 仁山府院君에 進封되고 이듬해(1471) 성종의 즉위를 보좌한 공으로 佐理功臣 제1등으로 녹훈되었다.

그러나 인산부원군에 대한 史官의 평가는 다양하다.

『世祖實錄』의 세조 14년(1468) 3월 3일(계해)조에 의하면 “홍윤성은 鴻山 사람이다. 젊었을 때 貧賤하여 鴻山鄉校에서 讀書하면서 괴로워도 부지런하고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사람됨이 豪俠하고 용맹하며 힘이 있어서 활을 잘 쏘고 그 기운이 落落하여 사람에게 지나는 것이 있었다. 과거에 급제하여 처음으로 벼슬하게 되니, 임금이 潛邸에 있으면서 이미 그 爲人의 그릇이 기이한 것을 알았다. 계유년(1453)에 靖難功臣이 되고 뒤에 또 佐翼功臣에 참여하여 임금의 뜻하는 바가 날로 도타워서, 몇 년이 아니 되어 권세와 지위가 이미 극진하였다. 드디어 富貴를 이루고 부귀한 뒤에는 역세고 사나우며 포악하고 어그러져서, 義를 행할 것은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기세로써 사람을 능멸하며 부귀한 것을 스스로 자랑하였으니, 이에 논밭과 집을 널리 세우고 嬖妾을 많이 두었다. 그 평생에 부족한 것을 보상하였으니, 비록 父兄의 尊貴라도 또한 멸시하듯 보는 까닭으로 威勢와 氣焰이 中外에 왕성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많았으니, 그 위엄을 쌓아 극진함이 家臣이 殺人하는 데 이른 것이었다. 임금이 일찍이 이르기를 ‘卿의 실수는 스스로 是非하는 사람에게 氣勢를 지어서 사람을 업신여기는 데에 있으니, 경은 스스로 삼가라!’ 하니, 홍윤성은 단지 冠만 벗고 사례할 따름이었다.”<sup>72)</sup>고 기록하고 있다.

7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14年 3月 3(癸亥)日條.

… [洪]允成 鴻山人 少貧賤 讀書於鴻山鄉校 勤苦不怠 爲人驍豪驚猛 有力善射 其氣有落落過人者 及登第筮仕 上在潛邸 已知其爲人器異之 癸酉爲靖難功臣 後又與佐翼功臣 眷注日篤 不數年而權位已極 遂致富貴 既富貴強狠悍戾 不顧行義 專以氣勢凌人 富貴自矜 乃廣樹田宅 多置嬖妾 以償其平生所不足者 雖父兄之尊 亦視之蔑如 故威勢氣焰 薰灼中外 人多畏憚 其積威之極 至於家臣殺人云 上嘗謂曰 卿之所失 在自是非人 作氣勢以侮人 卿自慎之 允成但免冠謝之而已.

또한 『成宗實錄』의 성종 6년(1475) 9월 8일(갑인)조에 의하면 “洪允成은 용모가 雄偉하고 체력이 남보다 뛰어났으며, 젊어서는 가난하였는데 힘써 배워서 급제하니 사람들이 재능이 있는 응걸로 기대하였다. 세조를 만나게 되자 총애하여 돌봄이 매우 융숭하였으며, 홍윤성이 본시 빈궁하였음을 알고 많은 良田을 내렸다. 홍윤성이 재화를 늘리는데 힘써 鴻山農莊에 쌓인 곡식은 鋸萬이었으며, 奴僕은 세도를 믿고 함부로 방자하여서 조금이라도 어기고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杖殺하기도 하였다. 세조가 溫陽에 거둥하여 목욕할 때, 士族의 부인 尹氏가 그 지아비가 홍윤성의 노복에게 살해되었음을 호소하니, 명하여 有司에 국문하게 하여 그 노복을 鞭刑하고 홍윤성은 국문하지 않았다. 사헌부에서 탄핵하여 아뢰기를, ‘홍윤성의 거칠고 狂妄한 태도와 교만하고 제 마음대로 날뛰는 형상을 聖鑑은 洞照하소서!’ 하니, 당시에 이르기를, ‘그의 잘못을 똑바로 맞추었다.’고 하였다. 侍妾·奴僕이 조금이라도 어기고 거슬리면 문득 용서하지 않고 弓劍을 쓰기까지 하였으며, 妻 南氏에게 자식이 없어서 같은 고을의 士族 金自謀의 딸을 강제로 취하여 장가들었다.”<sup>73)</sup>고 기록하고 있다.

## 2.2 仁山府院君의 功臣勳

조선은 건국 직후에 3차에 걸쳐 開國功臣·靖社功臣·佐命功臣 등을 녹훈하였다. 開國功臣은 태조 원년(1392) 7월에, 靖社功臣은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직후인 태조 7년(1398) 10월에, 그리고 佐命功臣은 태종의 즉위와 더불어 녹훈되었다.

또한 세조가 집권의 기틀을 마련하였던 단종 원년(1453) 10월부터 성종 2년(1471)까지 약 20년 동안에도 靖難功臣·佐翼功臣·敵愾功臣·翼戴功臣·佐理功臣

7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6年 9月 8(甲寅)日條.

… [洪]允成狀貌雄偉 膂力絶人 少窮貧 力學登第 人以才雄待之 及遇世祖 寵眷甚隆 知允成素貧 多賜以良田 允成務殖貨 鴻山農莊積穀鉅萬 奴僕憑勢橫恣 少有違逆 或杖殺之 世祖幸溫陽湯沐 有士族婦尹氏上言 訴其夫爲允成奴所殺 命有司鞠之 鞭其奴 不問允成 司憲府彈啓曰 允成麤疎狂妄之態 偃蹇跋扈之狀 聖鑑所洞照 時謂之正中其失 侍妾·奴僕少違忤 輒不貸 至有用弓劍 時妻南氏無子 同縣士族金自謀有女 勒娶之.

등의 공신이 녹훈되었다. 靖難功臣은 단종 원년 10월에 세조가 金宗瑞·皇甫仁 등 당시의 의정부 대신들을 제거한 직후에, 佐翼功臣은 세조가 즉위한 직후인 그의 원년(1455) 9월에, 敵愾功臣은 李施愛(?-1467)의 난을 평정한 직후인 세조 13년(1467) 9월에, 翼戴功臣은 예종이 즉위한 직후인 예종 즉위년(1468) 10월에 각각 녹훈되었다.

인산부원군에게 사급된 공신훈호는 단종조의 ‘輸忠協策靖難功臣’과 세조조의 ‘推忠佐翼功臣’ 및 성종조의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이다.

## 2.2.1 靖難功臣

靖難功臣은 癸酉靖難을 일으켜 성공한 데에 공을 세운 인물들에게 사급된 공신훈호이다.

단종 원년(1453, 계유) 10월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이른바 癸酉靖難이라 불리는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의 반대세력인 영의정 皇甫仁(?-1453)과 좌의정 金宗瑞(1383-1453) 및 安平大君 李瑢(1418-1453) 등이 叛逆을 도모하였다는 죄목으로 살해하고 스스로 영의정이 되어 조정의 실권을 잡은 뒤, 이 거사에 가담했던 인물들을 공신으로 녹훈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단종은 동년(1453) 10월 15일(무술)에 靖難의 功을 論定<sup>74)</sup>하였으며, 동년 11월 4일(병진)에는 의정부에서 靖難의 공이 있는 이들에게 공신으로 稱下하고 殿閣에 肖像을 붙이는 것과 褒賞 등을 啓聞<sup>75)</sup>하였다. 또한 동년 11월 8일(경

7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端宗 1年 10月 15(戊戌)日條.

論靖亂之功 以世祖及鄭麟趾·韓確·朴從愚·金孝誠·李思哲·李季甸·朴仲孫·崔恒·洪達孫·權擎·韓明滄爲一等 權躡·申叔舟·尹士昫·楊汀·柳洙·柳河·奉石柱·洪允成·郭連城·嚴自治·田昫爲二等 李興商·李禮長·成三問·金處義·權軀·薛繼祖·柳泗·康袞·林自蕃·柳自晃·權擎·宋益孫·洪順孫·崔[晝]潤·柳淑·安慶孫·韓明潛·韓瑞龜·李蒙哥·洪純老爲三等 三品以下 超三資.

7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端宗 1年 11月 4(丙辰)日條.

議政府啓 … 首陽大君(諱)·判中樞院事鄭麟趾·左贊成韓確 … 理合稱下靖難一等功臣 … 右承旨權躡·右副承旨申叔舟·濟用監正尹士昫·護軍楊汀·柳洙·柳河·行護軍奉石柱·前注簿洪允成 … 理合稱下靖難二等功臣 … 上護軍李興商·舍人李禮長 … 理合

신)에는 靖難의 공이 있는 이들에게 東·西班職을 차등 있게 올려서 제수<sup>76)</sup>하였으며, 11월 20일(임신)에는 공신들을 거느리고 城北壇에서 盟誓<sup>77)</sup>하였다. 또한 단종 2년(1454) 5월 27일(정축)에는 靖難功臣의 부모를 追贈<sup>78)</sup>하였으며, 단종 3년(1455) 정월 24일(경오)에는 靖難功臣을 思政殿에서 잔치하고 教書와 盟簇을 分賜<sup>79)</sup>하였다.

인산부원군은 세조를 도와 癸酉靖難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단종 3년(1455) 정월에 靖難功臣 제2등인 ‘輸忠協策靖難功臣’에 녹훈<sup>80)</sup>되었다.

## 2.2.2 佐翼功臣

佐翼功臣은 조선시대 세조 원년(1455)에 단종을 退位시키고 세조를 즉위하도

---

稱下靖難三等功臣 … 錄券成給 從之.

- 7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端宗 1年 11月 8(庚申)日條.

桃源君(懿敬王諱)陞興祿大夫 朴從愚爲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雲城府院君 安孟聃成祿大夫延昌尉 鄭悰光德大夫寧陽尉 鄭麟趾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議政府左議政 … 奉石柱·尹士昫·柳河·柳洙·洪允成·郭連城輸忠協策靖難功臣 … 並陞授東西班職 有差.

- 7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端宗 1年 11月 20(壬申)日條.

魯山率功臣 盟于城北壇 ….

- 7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端宗 2年 5月 27(丁丑)日條.

議政府啓 曾下傳旨 追贈靖難功臣父母 一等超三等 二等超二等 三等超一等 然間有子秩高而父無職者 假如一等功臣之父無職者超三等 則只拜正八品 父子職秩大相懸絕 有違國家優待功臣之意 考續吏典追贈條 六品以上 有功於國家者 其父準子職追贈 今亦依此例準子職 又以功臣之等超品追贈 從之.

- 7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端宗 3年 1月 24(庚午)日條.

宴靖難功臣于思政殿 分賜教書及盟簇 宗親寧海君以上及承旨等亦待宴.

- 8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端宗 3年 1月 24(庚午)日條.

教輸忠協策靖難功臣威毅將軍守忠佐侍衛司大護軍洪允成曰 才俊者 能成茂績 功茂者 必膺異恩 行賞之規 自古有典 惟爾稟氣雄偉 秉德眞純 學通經史之文 識達古今之變 詞華出乎類 名既擅於高科 武藝超乎群 職常兼於司僕 惟才之卓 如爾者稀 日者至親塔率我幼孤 潛圖不軌 乃與姦臣皇甫仁·金宗瑞·李穰·閔伸·趙克寬等 內要寺人 外結邊將 陰聚不逞之輩 潛輸遠郡之兵 禍變迫於須臾 宗社幾乎顛覆 于時叔父首陽大君炳幾先 首舉大義 爾乃協謀 奔走宣力 剗兇堅於跬步之間 底國脈於磐石之固 勳庸之盛 前古罕聞 爰策勳爲二等 爵其父母及妻 宥及永世 仍賜田一百五十結·奴婢十五口·馬一匹·白銀二十五兩·表裏一段 至可領也 於戲 拔去兇邪, 既能勘定禍亂, 勤勞終始, 庶幾永輔盈成.

록 하는데 공로를 세운 인물들에게 賜給된 功臣勳號이다.

세조는 魯山君(端宗)의 禪位로 단종 3년(1455) 윤6월 11일(을묘)에 勤政殿에서 즉위<sup>81)</sup>한 뒤, 동년(1455) 8월 13일(병진)에 功臣의 錄勳을 下命<sup>82)</sup>하여 9월 5일(정축)에 左翼功臣을 議定<sup>83)</sup>하였다. 동년 9월 9일(신사)에는 左翼功臣의 포상을 佐命功臣의 사례에 의하도록<sup>84)</sup> 하자 吏曹에서 左翼功臣의 封爵과 田土에 관하여 啓聞<sup>85)</sup>하였다. 또한 동년 9월 14일(병술)에는 사정전에서 左翼功臣에게 물품을 하사하고 宴會<sup>86)</sup>를 베풀었으며, 동년 10월 22일(갑자)에는 左翼功臣을

- 8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1年 閏6月 11(乙卯)日條.  
 … 魯山起立 世祖俯伏涕泣固辭 魯山手執寶授世祖 世祖辭不獲受之 猶俯伏 魯山命扶出 世祖出至大君廳 司僕官侍立 軍士侍衛 政府令集賢殿副提學金禮蒙等製禪位·即位教書 有司備儀衛 設軒架於勤政殿庭 世祖具翼善冠·袞龍袍 率百官詣殿庭受禪 … 以景泰六年閏六月十一日 即位於勤政殿 尊主上爲上王 …
- 8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1年 8月 13(丙辰)日條.  
 御札下教曰 予以否德 叨承大業 夙夜祗畏 … 曰篤不忘 惟爾政府 速舉策勳之典 以表同舟之意.
- 8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1年 9月 5(丁丑)日條.  
 上定左翼功 以桂陽君璿 翼峴君璉 韓確尹師路·權攀·申叔舟·韓明澮爲一等 號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 鄭麟趾·李思哲·尹巖·李季隣·李季甸·姜孟卿·尹炯·崔恒·田昉·洪達孫·楊汀·權攀爲二等 輸忠勁節佐翼功臣 權恭·李澄石·鄭昌孫·黃守身·朴薑·權自慎·朴元亨·具致寬·尹士昉·成三問·曹錫文·李禮長·元孝然·韓終孫·李徽·黃孝源·尹子雲·李克培·李克堪·權愷·崔濡·曹孝門·韓繼美·鄭守忠·趙得琳爲三等 推忠佐翼功臣.
- 8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1年 9月 9(辛巳)日條.  
 傳曰 佐翼功臣褒賞 依佐命功臣例施行.
- 8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1年 9月 10(壬午)日條.  
 吏曹據議政府舍人司閤啓 佐翼一等功臣封爵錫土 父母妻超三等封贈 直子超三等蔭職 無直子則甥姪女婿超一等蔭職 田幾結·奴婢幾口·根隨七人·伴尙十人 二等 父母妻超二等封贈 直子超二等蔭職 無直子則甥姪女婿超一等蔭職 田幾結·奴婢幾口·根隨五人·伴尙八人 三等 父母妻超一等封贈 直子超一等蔭職 無直子則甥姪女婿蔭職 田幾結·奴婢幾口·根隨三人·伴尙六人 竝立閣圖形 樹碑紀功 嫡長世襲不失其祿 子孫則記于政案曰 佐翼幾等功臣某之後 雖有罪犯 宥及永世 命賜一等 各田一百五十結·奴婢十三口·白金五十兩·表裏一套·內廐馬一匹 二等 田一百結·奴婢十口·白金二十五兩·表裏一套·內廐馬一匹 三等 田八十結·奴婢八口·白金二十五兩·表裏一套·內廐馬一匹 餘如所啓.
- 8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世祖 1年 9月 14(丙戌)日條.  
 上御思政殿 賜佐翼功臣表裏·白金·內廐馬 諸功臣拜謝 親賜酒 …

거느리고 함께 會盟<sup>87)</sup>하였다. 그리고 동년 11월 12일(계미)에는 예조참의 홍윤성을 좌익공신 제3등에 녹훈하도록 吏曹에 傳旨<sup>88)</sup>하였으며, 동년 11월 18일(기축)에는 종친·부마가 종친부에서 靖難功臣과 左翼功臣에게 功臣宴<sup>89)</sup>를 베풀었다.

인산부원군은 단종을 퇴위시키고 세조의 즉위를 도운 공로를 추가로 인정받아 세조 4년(1458) 6월에 左翼功臣 제3등인 ‘推忠左翼功臣’에 追錄<sup>90)</sup>되었다.

### 2.2.3 佐理功臣

佐理功臣은 성종 2년(1471) 3월에 국왕을 잘 보필하여 정치를 잘 하도록 하는데 공로를 세운 인물들에게 賜給된 功臣勳號이다.

佐理功臣의 녹훈은 성종 2년(1471) 3월 26일(기축)에 差備門 밖에서 佐理功臣을 議定<sup>91)</sup>하면서 시작되어 3월 27일(경자)에 吏曹에 “昊天이 불쌍하게 여기시지 아니하심인가! 우리 世祖大王께서 갑자기 群臣을 버리신지 얼마 아니 되어 睿宗大王께서 賓天하시니 後嗣를 이을 자가 병들고 어리므로 온 나라가 遑遑하였는

---

8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祖 1年 10月 22(甲子)日條.  
上具冕服 率佐翼功臣等同盟 其誓文曰 … 天地神明 昭布在上 各欽誓言 罔或有渝.

8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祖 1年 11月 12(癸未)日條.  
傳旨吏曹曰 禮曹參議洪允成錄佐翼功臣三等.

8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祖 1年 11月 18(己丑)日條.  
宗親·駙馬設宴于宗親府 慰靖難·佐翼功臣等 賜酒樂 且傳于承政院曰 當直承旨外 皆赴宴.

9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祖 4年 6月 29(乙酉)日條.  
敎洪允成曰 有非常之才者 必成不世之功 有不世之功者 宜受莫大之報 卿風姿挺特 器度 雄偉 文武之才 卓然不群 予在潛邸一見卿 知其爲非常之材 遂擬爲心腹 卿亦赤心在我 知無不爲 頃值國家之疑危 宗戚權姦相煽爲變 將不利於社稷 予時養養 欲事剷除 卿能密 贊籌策 出死力以捍衛之 靖亂之功 卿實居多 自予輔政以來 功高權重 爲人所忌 兇孽尙存 相繼爲變 卿能左右先後 弘濟艱難 嗚呼 自古有國家者 不有豪傑之士 感會知遇 同心協力 誰與成厥功哉 予惟是至今日 休繫[繫]卿是賴 寔用曰嘉 肆策動爲佐翼三等功臣 爵其父母 及妻 宥及永世 仍賜田八十結·奴婢八口·白銀二十五兩·表裏一段·內廐馬一匹 至可 領也 於戲 撐天貫日之忠 心德如一 礪山帶河之誓 終始難忘.

9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年 3月 26(己亥)日條.  
命高靈府院君申叔舟 上黨府院君韓明滄 河城尉鄭顯祖 議定佐理功臣于差備門外.

데, 우리 慈聖大王大妃께서 세조대왕을 追念하시고 予小子를 돌아보시고 이에 큰 策命을 정하시니 내가 들어와 큰 王業을 잇게 되었도다! 나는 付托한 책임이 중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오로지 몸을 삼갔는데, 이때에 股肱의 臣僚들이 좌우에서 분주하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써서 금일에 이르러, 인심이 크게 안정되고 국가가 태평하여지니, 내가 그 공을 가상히 여겨서 이에 賞典을 거행하노라!”<sup>92)</sup>는 傳旨를 내려 佐理功臣號를 사급하게 하고 물품을 하사<sup>93)</sup>하였으며, 3월 28일(신축)에는 좌리공신들에게 공신호<sup>94)</sup>를 내렸다. 또한 동년(1471) 5월 5일(정축)에는 공신의 부친들을 ‘純忠積德秉義補祚’·‘純忠積德補祚’·‘純忠補祚’ 등의 3등으로 추증<sup>95)</sup>하였으며, 이듬해인 성종 3년(1472) 7월 3일(무술)에 仁政殿에 나아가 飲福宴을 베풀고 좌리공신들에게 좌리공신교서를 사급<sup>96)</sup>함으로써 좌리공신의 錄勳

9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年 3月 27(庚子)日條.

傳旨吏曹曰 昊天不弔 我世祖大王 奄棄群臣 未幾睿宗大王 賓天 繼嗣幼幼 一國遑遑 我慈聖大王大妃 追念世祖大王 眷予小子 乃定大策命 予入纘丕緒 予以托之重 夙夜惟寅 于時股肱臣僚 奔走左右 盡心效力 以至今日 人心大定 國家盤安 予嘉乃功 爰舉賞典 以申叔舟·韓明滄·崔恒·洪允誠·曹錫文·鄭顯祖·尹子雲·金國光·權臧 爲佐理一等 以[李]婷·[李]琛·鄭麟趾·鄭昌孫·沈滄·金碩·韓伯倫·尹士昕·韓繼美·韓繼禧·宋文琳 爲佐理二等 以成奉祖·盧思慎·姜希孟·任元濬·朴仲善·李克培·洪應·徐居正·梁誠之·金謙光·康袞·慎承善·李克增·韓繼純·鄭孝常·尹繼謙·韓致亨·李崇元 爲佐理三等 以金守溫·李石亨·尹弼商·許琮·黃孝元·柳洙·魚有沼·咸禹治·李埴·金吉通·宣炯·禹貢·金嶠·吳伯昌·朴居謙·李鐵堅·韓致仁·具文信·李淑琦·鄭蘭宗·鄭崇祖·李承召·韓致義·韓堡·金壽寧·韓致禮·韓嶷·李克墩·李壽男·[李]鉉·申澗·金順命·柳輕·沈澗·申浚 爲佐理四等功臣.

9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年 3月 27(庚子)日條.

傳旨司僕寺曰 賜佐理功臣兒馬各一匹 傳旨兵曹 賜佐理功臣伴僮一等十人 二等八人 三等六人 四等四人 傳旨戶曹 賜佐理功臣田一等四十結 二等三十結 三等二十結 四等一十結 并賜鄉表裏各一 傳旨掌隸院 賜佐理功臣一等奴婢五口 丘史五口 二等奴婢四口 丘史四口 三等奴婢三口 丘史三口 四等奴婢二口 丘史二口.

9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年 3月 28(辛丑)日條.

賜佐理功臣號 一等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 二等純誠明亮經濟佐理 三等純誠明亮佐理 四等純誠佐理.

9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年 5月 5(丁丑)日條.

吏曹啓 前此追贈功臣父 一等純忠積德秉義補祚 二等純忠積德補祚 三等純忠補祚 今佐理功臣四等 其追贈請依三等例 從之.

9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3年 7月 3(戊戌)日條.

上御仁政殿 設飲福宴 仍賜佐理功臣錄券 …

은 일단락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좌리공신을 녹훈하는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국왕이 좌리공신을 議定할 것을 명하고 신숙주 등에게 佐理功臣號를 내리도록 吏曹에 전지하였을 때, 司憲府持平 金首孫(?-?)과 司諫院獻納 柳文通(1438-1498) 등이 “금번의 좌리공신은 무슨 功이 있습니까! 태평한 시대에 論功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sup>97)</sup>고 하면서 좌리공신의 녹훈을 반대한 것을 비롯하여 심지어 대간이 승복하여 반대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좌리공신 녹훈에 관한 의론이 분분하자, 高靈府院君 申叔舟와 都承旨 鄭孝常(1432-1481) 등은 “근자에 臺諫에서 功臣을 封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논하여 여러 번 上章하고서 辭職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 등은 명백하게 나타나는 공훈이 없으므로 대간의 말이 과연 옳으니, 그 말을 따르소서!”<sup>98)</sup>라고 청하자 성종은 “이는 卿들이 의논할 일이 아니고, 바로 人主가 勳勞를 褒獎하는 典例이니 사양하지 말라!”고 傳敕<sup>99)</sup>하였다.

이러한 좌리공신 녹훈의 분분한 의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성종은 성종 2년(1471) 8월 25일(을축)에 이조에 전지를 내려 “노고에 보답하고 공로에 상을 주는 것은 나라의 常典이다. 내가 德이 적은 사람으로서 大統을 이으니, 오직 충성스럽고 곧으며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신하들이 서로 벼슬길에 올라서 그림자처럼 나를 따르고, 혹은 재상으로서 혹은 장수로서 나를 보호하고 호위하며, 혹은 생각을 경연에서 논하고 혹은 힘을 외방에서 펴는데, 혹은 이목의 관원이 있고 혹은 爪牙의 人士가 있도다! 혹은 좌우에 있으면서 言動에 기강을 세우고 산을 넘고 물을

9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成宗 2年 3月 27(庚子)日條.

司憲府持平金首孫·司諫院獻納柳文通來啓曰 今者佐理功臣 有何功耶 治平之世 不宜論功 傳曰 今日封功臣 不得已耳 臺諫又啓曰 若太祖·太宗之世 則有功臣宜矣 世宗治平之朝 未有功臣 今乃何因 而欲報功乎 請勿封 傳曰 嗣大歷服 式至今休 豈無其功.

9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成宗 2年 4月 4(丙午)日條.

高靈府院君申叔舟等及都承旨鄭孝常等啓曰 今者 臺諫論封功臣不便 累上章 以至辭職 臣等無顯顯之功 臺諫之言果是 請從其言.

9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成宗 2年 4月 4(丙午)日條.

傳曰 此非卿等所議之事 乃人主褒獎勳勞之典 其勿辭.

건너는 수고를 하여서 敷奏에 참여하며, 혹은 侍從에 참여하고 혹은 戚屬으로 연결되며 심지어 賤한 僕隸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분주한 노력을 다하니, 이것이 비록 직분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하나 내가 감히 잊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포상의 恩典을 보여서 시종 한결같은 의리를 굳게 하노라!”<sup>100)</sup>고 하면서 오히려 烏山君 李澍(1534-1584) 등 1,059인을 佐理原從功臣으로 녹훈하고 褒賞<sup>101)</sup>함으로써 좌리공신의 錄勳을 매듭지었던 것이다.

인산부원군은 성종을 보필하여 정치를 잘 하도록 하는데 조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성종 2년(1471) 3월에 佐理功臣 제1등인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에 녹훈<sup>102)</sup>되었으며,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敎書>는 이듬해인 成宗 3년(成化 8, 1472) 6월에 賜給<sup>103)</sup>되었다.

10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年 8月 25(乙丑)日條.

傳旨吏曹曰 酬勞賞功 有國常典 予以寡德 入承大統 惟忠貞不二心之臣 攀附景從 或相或將 以翼以衛 或論思經幄 或宣力外服 或有耳目之官 或有爪牙之士 或在左右 以紀言動 或勤跋涉 以與敷奏 或參侍從 或連戚屬 以至僕隸之賤 悉効奔走之力 茲雖職分之宜 予敢忘哉 當示褒賞之典 以堅終始之義 其以烏山君澍等一千五十九人 爲原從功臣 分三等稱下.

10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年 8月 25(乙丑)日條.

傳旨吏曹曰 原從功臣一等 各加一資 子孫承蔭 宥及後世 父母封爵 二等 各加一資 子孫承蔭 宥及後世 並子孫中가 從自願加散官一資 其無子孫者 兄弟婿姪中 從自願加散官一資 三等 各加一資 子孫承蔭 宥及後世 各等通訓以上 則子孫兄弟甥姪女婿中一人 從自願加散官一資 物故人 則各依本等施行 各追贈一資 犯罪作散人 則並於本品敘用 在喪及無故作散人 則各加一資敘用 永不敘用人 則許通仕路 職牒收取人 則並還給 妾子則勿限品 公私賤則並免賤.

10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端宗 3年 1月 24(庚午)日條.

敎諭忠協策靖難功臣威毅將軍守忠佐侍衛司大護軍洪允成曰 才俊者 能成茂績 功茂者 必膺異恩 行賞之規 自古有典 惟爾稟氣雄偉 秉德真純 學通經史之文 識達古今之變 詞華出乎類 名既擅於高科 武藝超乎群 職常兼於司僕 惟才之卓 如爾者稀 日者至親塔幸 我幼孤 潛圖不軌 乃與姦臣皇甫仁·金宗瑞·李穰·閔伸·趙克寬等 內要寺人 外結邊將 陰聚不逞之輩 潛輸遠邇之兵 禍變迫於須臾 宗社幾乎顛覆 于時叔父首陽大君明炳幾先 首舉大義 爾乃協謀 奔走宜力 剋兇豎於跬步之間 底國脈於磐石之固 勳庸之盛 前古罕聞 爰策勳爲二等 爵其父母及妻 宥及永世 仍賜田一百五十結·奴婢十五口·馬一匹·白銀二十五兩·表裏一段 至可領也 於戲 拔去兇邪, 既能勘定禍亂, 勤勞終始, 庶幾永輔盈成.

103) 功臣都監 編,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敎書>, 筆寫本, [漢城]: [功臣都監], [成化 8(成宗 3, 1472)]. 金在泳 所藏本.

### 3.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

본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는 이미 ‘輸忠協策靖難功臣’과 ‘推忠佐翼功臣’에 녹훈된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領經筵事 仁山府院君 洪允成에게 賜給된 佐理功臣 제1등의 功臣教書이다.

본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는 성종 2년(1471) 3월에 성종을 국왕으로 추대하여 정치를 잘 하도록 보좌한 데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공신으로 녹훈된 이듬해인 成宗 3년(成化 8, 1472) 6월에 賜給된 것이다.

#### 3.1 功臣教書의 書誌와 形態

본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은 功臣號와 受給者의 職銜·姓名을 비롯하여 功績·致辭·褒賞規定 그리고 等級別 功臣의 名單 및 賜給時期 등이 세로 28.0cm 가로 150.0cm의 丹黃色의 生絹에 63행으로 墨書되어 있다.

본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의 書誌記述과 形態事項을 摘錄하면 다음과 같다.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 / 功臣都監 編. -- 筆寫本. -- [漢城]: [功臣都監], [成化 8(成宗 3, 1472)].

1軸 ; 28.0 × 150.0 cm. 丹黃色絹布墨書. 改裝.

印文: ‘朝鮮/國王/之印’(頭部·尾部)

裝訂: 원래 卷軸裝이었던 듯하나, 현재 軸이 失傳되어 軸材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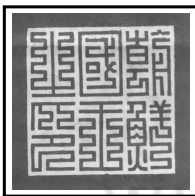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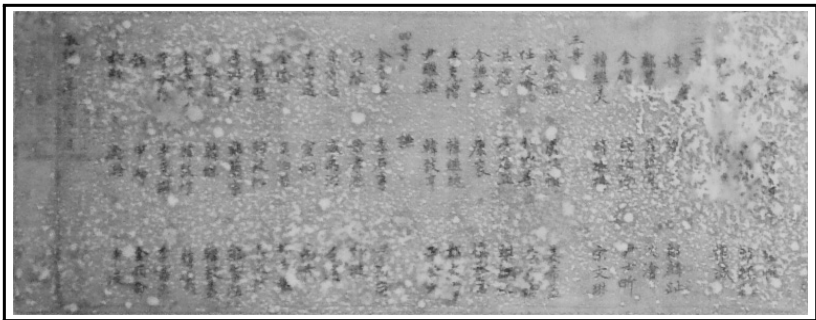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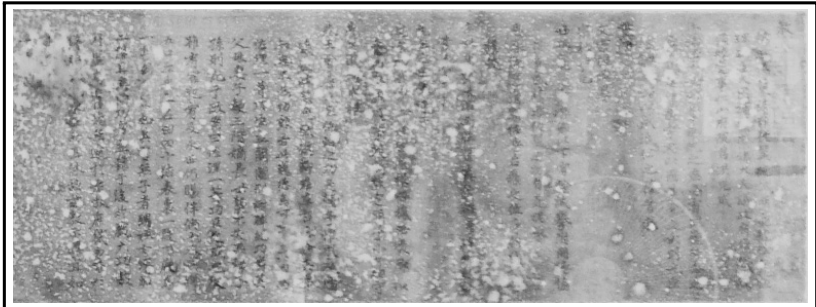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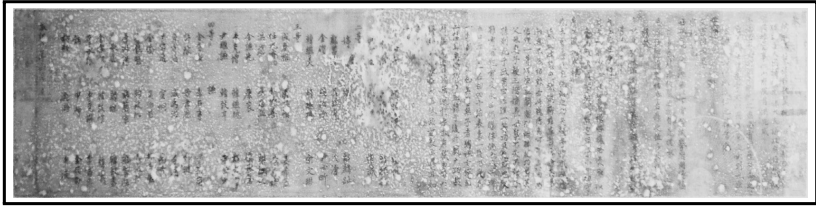
狀態: 물을 뿌린 얼룩으로 인해 字劃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이다.

본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의 紙料로 사용된 丹黃色 生絹은 絹布에 黃漆染色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본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은 원래 卷軸裝의 형태로 裝定되었을 것이나 현재 上下左右의 가장자리의 절단으로 인하여 軸은 失傳되어 전래되지 않으며, 따라서 軸材가 어떤 材料였는지는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물을 뿌린 얼룩으로 인해 字劃을 알아 볼 수 없는 곳이 몇 곳에 있기는 하나, 보존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寫眞 1>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와 印文





- 18 皇考初兆景命逆賊營構禍機垂發卿以
- 19 舊相參議盡策剋期戡定顧予小子嗣守
- 20 先王遺緒亦惟
- 21 先王勳舊之臣保佑之功是賴予惟夙夜圖
- 22 議庶政思免厥愆卿在左右彌綸爽操
- 23 知無不爲功勳若此巍德烏可忘乎其卿爲
- 24 佐理一等功臣立閣圖刑樹碑紀功爵其
- 25 父母妻子超三階嫡長世襲不失其祿子
- 26 孫則記于政案曰佐理一等功臣允成之後
- 27 雖有罪犯宥及永世仍賜伴佾十人奴婢
- 28 五口丘史五名田四十結表裏一段內廐馬
- 29 一匹至可領也其有無子者甥姪女壻加
- 30 二階且與同功者並錄于後於戲大功載
- 31 於監察[宜]舊德無逾於老成庶幾勿替於
- 32 終始式克永世而匪休故茲教示想宜知
- 33 悉
- 34 一等
- 35 申叔舟 韓明澮 崔 恒
- 36 洪允成 曹錫文 鄭顯祖
- 37 尹子雲 金國光 權 城
- 38 二等
- 39 婷 琛 鄭麟趾
- 40 鄭昌孫 具致寬 沈 澮
- 41 金 碩 韓伯倫 尹士昕
- 42 韓繼美 韓繼禧 宋文琳
- 43 三等
- 44 成奉祖 盧思慎 姜希孟

- 45 任元濬 朴仲善 李克培  
46 洪 應 徐居正 梁誠之  
47 金謙光 康 袞 慎承善  
48 李克增 韓繼純 鄭孝常  
49 尹繼謙 韓致亨 李崇元  
50 四等  
51 金守溫 李石亨 尹弼商  
52 許 琮 黃孝源 柳 洙  
53 魚有沼 咸禹治 李 埴  
54 金吉通 宣 炯 禹 貢  
55 金 嶠 吳伯昌 朴居謙  
56 李鐵堅 韓致仁 具文信  
57 李淑琦 鄭蘭宗 鄭崇祖  
58 李承召 韓 塚 韓致義  
59 金壽寧 韓致禮 韓 嶷  
60 李永垠 李克墩 李壽男  
61 鉉 申 澣 金順命  
62 柳 輕 沈 瀚 申 浚  
63 成化八年 六月 日  
[朝鮮國王之印]

### 3.3 功臣教書의 分析

본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의 頭部에는 먼저 功臣號와 受給者의 職銜 및 姓名이 기록되어 있고 本文에는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으로 錄動된 인산부원군의 愛國觀과 功績에 대한 致辭와 褒賞規定 및 等級別 功臣의 名單이 기록되어 있으며, 尾部에는 본 功臣教書를 賜給한 時期가 기록되어 있다.

### 3.3.1 功臣敎書의 受給者

본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敎書>의 첫머리에는 “敎/ 輸忠協策靖難佐翼純誠明亮經濟弘化佐/ 理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 領經筵事仁山府院君洪允成”<sup>105)</sup>의 功臣號와 受給者의 職銜 및 姓名이 기록되어 있다.

‘輸忠協策靖難’은 단종 원년(1453) 10월에 靖難功臣 제2등에 錄動<sup>106)</sup>된 공신 호이고 ‘佐翼’은 世祖의 卽位를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세조 4년(1458) 6월에 左翼功臣 제3등인 ‘推忠左翼功臣’에 추록<sup>107)</sup>된 공신호이며,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은 성종 2년(1471) 3월 좌리공신 제1등으로 錄動되고 성종 3년(1472) 6월에 功臣敎書가 사급될 당시의 功臣號이다.

---

105) 功臣都監 編,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敎書>, 筆寫本, [漢城]: [功臣都監], [成化 8(成宗 3, 1472)].

敎/輸忠協策靖難佐翼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領經筵事仁山府院君洪允成 ….

10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端宗 3年 1月 24(庚午)日條.

敎輸忠協策靖難功臣威毅將軍守忠佐侍衛司大護軍洪允成曰 才俊者 能成茂績 功茂者 必膺異恩 行賞之規 自古有典 惟爾稟氣雄偉 秉德眞純 學通經史之文 識達古今之變 詞華出乎類 名既擅於高科 武藝超乎群 職常兼於司僕 惟才之卓 如爾者稀 日者至親塔幸 我幼孤 潛圖不軌 乃與姦臣皇甫仁·金宗瑞·李穰·閔伸·趙克寬等 內要寺人 外結邊將 陰聚不逞之輩 潛輸遠郡之兵 禍變迫於須臾 宗社幾乎顛覆 于時叔父首陽大君明炳幾先 首舉大義 爾乃協謀 奔走宣力 剗兇豎於跬步之間 底國脈於磐石之固 勳庸之盛 前古罕聞 爰策勳爲二等 爵其父母及妻 宥及永世 仍賜田一百五十結·奴婢十五口·馬一匹·白銀二十五兩·表裏一段 至可領也 於戲 拔去兇邪 既能勘定禍亂 勤勞終始 庶幾永輔盈成.

10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祖 4年 6月 29(乙酉)日條.

敎洪允成曰 有非常之才者 必成不世之功 有不世之功者 宜受莫大之報 卿風姿挺特 器度雄偉 文武之才 卓然不群 予在潛邸一見卿 知其爲非常之材 遂擬爲心腹 卿亦赤心在我 知無不爲 頃值國家之疑危 宗戚權姦相煽爲變 將不利於社稷 予時奮義 欲事剷除 卿能密贊籌策 出死力以捍衛之 靖亂之功 卿實居多 自予輔政以來 功高權重 爲人所忌 兇孽尚存 相繼爲變 卿能左右先後 弘濟艱難 嗚呼 自古有國家者 不有豪傑之士 感會知遇 同心協力 誰與成厥功哉 予惟式至今日休 繫[繫]卿是賴 寔用日嘉 肆策勳爲佐翼三等功臣 爵其父母及妻 宥及永世 仍賜田八十結·奴婢八口·白銀二十五兩·表裏一段·內廐馬一匹 至可領也 於戲 撐天貫日之忠 心德如一 礪山帶河之誓 終始難忘.

### 3.3.2 功臣의 功績 內容

본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에는 功臣號와 受給者의 職銜 및 姓名에 관한 기록에 이어서 人산부원군의 愛國觀과 功績에 관한 致辭가 수록되어 있다.

본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에 기록된 人산부원군의 愛國觀과 功績에 관한 致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國王은 이르노라!

예로부터 나라를 일으켜 統緒를 전수한 人君에게는 반드시 同德으로 佐命한 신하가 있으며, 嗣王이 守文<sup>108)</sup>을 계승<sup>109)</sup>하여 基業의 至大함을 도모함에는 元老大臣들이 忠誠을 다하여 引導함으로써 政治와 教化의 興隆이 이루어졌던 것이도다! 예전에 우리 世宗大王과 文宗大王께서 서로 계승하신 뒤 이윽고 宗社가 점차 위태로워지자, 世祖大王의 龍德이 바야흐로 潛邸에 있었을 때 卿 이하의 官僚들은 誠意를 다하여 同德協策에 매달림으로써 마침내 靖難과 佐翼의 功績을 이루었으니, 이로부터 恩寵을 입어 빠르게 승진하여 顯任을 두루 거치고 台鼎<sup>110)</sup>의 地位를 受惠하여 將帥와 宰相의 권한을 兼全하였던 것이도다! 그 후에 宗社가 太山보다 막중하며 佳靈이 전별하는 祖席에서 奠爵을 바쳤으니, 생각건대 卿의 勳業은 先王께서 治世할 때에 이미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던 것이도다! 증조(皇考)에 이르러 처음으로 景命<sup>111)</sup>을 조짐하여 逆賊이 營構되고 禍機<sup>112)</sup>가 거의 일어날 무렵에 卿은 舊相으로서 모든 方策을 參議하여 제때에 戡定<sup>113)</sup>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先王의 遺緒를 嗣守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생각건대 先王의 勳舊大臣이 保佑한 功이 나에게로 의뢰되어, 생각건대 夙夜로 庶政을 圖議하여 허물이 없게 되기를 생각하였던 것이도다! 卿이 左右에서 彌綸<sup>114)</sup>을 굳건히 잡아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功勳이 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이와 같은 巍德<sup>115)</sup>을 어찌 잊을 수 있으리던 것인가!

이에 卿을 佐理一等功臣으로 삼아 閣을 세워 모습을 그리고 碑를 세워 功을

108) 守文: 선대의 법을 이어받아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을 편안히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109) 繼統: 임금의 자리를 이어받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10) 台鼎: 三政丞을 의미하는 것이다.

111) 景命: 크나큰 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곧 御命을 지칭하는 것이다.

112) 禍機: 재앙이나 재난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기틀을 의미하는 것이다.

113) 戡定: 적을 물리쳐서 亂離를 平定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14) 彌綸: 天地의 道를 잘 다스리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115) 巍德: 높고 큰 공덕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록하도록 하도다! 그리고 卿의 父母와 妻子의 벼슬을 3資級 特進시키며 嫡長은 世襲하게 하여 그 祿俸을 잃지 않게 하고 子孫은 政案에 ‘佐理一等功臣 [洪]允成의 後孫은 罪를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永世도록 赦宥하도록 하라!’고 기록하며, 인하여 伴尙 10人, 奴婢 5口, 丘史 5名, 田 40結, 表裏 1段, 內廐馬 1匹을 賜給하니 이르거든 받도록 하라! 아들이 없는 자는 甥姪이나 女婿의 벼슬을 2資級 올려주며 그리고 功勳이 같은 자들을 뒤에다 함께 기록하는 바이도다!

아! 大功이 都監에 기재되니 마땅히 옛 恩德이 老成<sup>116)</sup>에서 벗어나지 않아 바라건대 항상 어기지 말아야 할 것이며, 永世에 이르도록 休止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리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敎示하노니 잘 알 것으로 여기는 바이도다!<sup>117)</sup>

### 3.3.3 功臣의 褒賞 內容

본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敎書>에는 인산부원군의 애국관과 공적의 치사에 이어서 국가에서 그에게 사급하는 포상의 내용<sup>118)</sup>이 기록되어 있다.

116) 老成: 많은 經歷을 쌓아서 世上事에 老鍊하고 익숙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17) 功臣都監 編,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敎書>, 筆寫本, [漢城]: [功臣都監], [成化 8(成宗 3, 1472)].

… 王若曰自古創業垂統之君必有同德佐命之/臣而嗣王繼統守文以圖基業之大則元臣/盡忠作壽以成治化之隆昔我/世宗/文宗相繼晏/宗社沾危/世祖龍德方潛卿以下官輸誠攀附同德協/策克成靖難佐翼之功自是呢承/恩眷驟歷遼顯任惠台鼎之位身都將相之/權後/社重於太山而佳靈奠於祖席惟卿之勳/業盡事于/先王之世矣逮于/皇考初兆景命逆賊營構禍機垂發卿以/舊相參議盡策剋期戡定顧予小子嗣守/先王遺緒亦惟/先王勳舊之臣保佑之功是賴予惟夙夜圖/議庶政思免厥愆卿在左右彌綸爽操/知無不爲功勳若此巍德烏可忘乎其卿爲/佐理一等功臣立閣圖刑[形]樹碑紀功爵其/父母妻子超三階嫡長世襲不失其祿子/孫則記于政案曰佐理一等功臣允成之後/雖有罪犯宥及永世仍賜伴尙十人奴婢/五口丘史五名田四十結表裏一段內廐馬/一匹至可領也其有無子者甥姪女增加/二階且與同功者並錄于後於戲大功載/於監察[宜]舊德無逾於老成庶幾勿替於/終始式克永世而匪休故茲敎示想宜知/悉 …

118) 功臣都監 編,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敎書>, 筆寫本, [漢城]: [功臣都監], [成化 8(成宗 3, 1472)].

… 佐理一等功臣立閣圖刑[形]樹碑紀功爵其/父母妻子超三階嫡長世襲不失其祿子/孫則記于政案曰佐理一等功臣允成之後/雖有罪犯宥及永世仍賜伴尙十人奴婢/五口丘史五名田四十結表裏一段內廐馬/一匹至可領也其有無子者甥姪女增加/二階且與同功者並錄于後於戲大功載/於監察舊德無逾於老成庶幾勿替於/終始式克永世而匪休故茲敎示想宜知/悉 …

『朝鮮王朝實錄』과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에서 인산부원군이 受給한 공신의 등급별 포상내용을 정리하여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3> 仁山府院君의 受給한 功臣等級別 褒賞內容

褒賞內容	靖難功臣 第2等 <sup>119)</sup>	左翼功臣 第3等 <sup>120)</sup>	佐理功臣 第1等 <sup>121)</sup>
· 立閣圖形樹碑紀功	[立閣圖形樹碑紀功]	[立閣圖形樹碑紀功]	· 立閣圖形樹碑紀功
· 其父母妻子超幾階	· 爵其父母及妻	· 爵其父母及妻	· 父母妻子超三階
· 嫡長世襲不失其祿	· -	· -	· 嫡長世襲不失其祿
· 子孫則紀于政案 …	· -	· -	· 子孫則記于政案
· 有罪犯宥及永世	· 宥及永世	· 宥及永世	· 有罪犯宥及永世
· 賜田幾結	· 賜田一百五十結	· 賜田八十結	· 田四十結
· 白銀幾兩	· 白銀二十五兩	· 白銀二十五兩	· -
· 伴佻幾人	· -	· -	· 伴佻十人
· 奴婢幾口	· 奴婢十五口	· 奴婢八口	· 奴婢五口
· 丘史幾名	· -	· -	· 丘史五名
· 表裏幾段	· 表裏一段	· 表裏一段	· 表裏一段
· 內廐馬幾匹	· 馬一匹	· 內廐馬一匹	· 內廐馬一匹

인산부원군은 靖難功臣·左翼功臣·佐理功臣 등 3차에 걸친 공신의 錄勳과 함께 적지 않은 포상을 수급함으로써 端宗·世祖·睿宗·成宗朝의 勳舊大臣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던 것이다.

11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端宗 3年 1月 24(庚午)日條.

教輸忠協策靖難功臣威毅將軍守忠佐侍衛司大護軍洪允成曰 … 爰策勳爲二等 爵其父母及妻 宥及永世 仍賜田一百五十結 奴婢十五口 馬一匹 白銀二十五兩 表裏一段 至可領也 ….

120) ①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祖 1年 11月 23(甲午)日條.

御慶會樓 下賜佐翼功臣禮曹參議洪允成表裏一套 白金二十五兩 ….

②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祖 4年 6月 29(乙酉)日條.

教洪允成曰 … 肆策勳爲佐翼三等功臣 爵其父母及妻 宥及永世 仍賜田八十結 奴婢八口 白銀二十五兩 表裏一段 內廐馬一匹 至可領也 ….

121) 功臣都監 編,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 筆寫本, [漢城]: [功臣都監], [成化 8(成宗 3, 1472)].

### 3.3.4 功臣의 等級別 名單

본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에는 인산부원군의 愛國觀에 관한 致辭와 褒賞規定에 이어서 佐理功臣 제1등에서부터 제4등에 이르기까지의 75인의 功臣名單이 기록<sup>122)</sup>되어 있다.

이들 75인 공신들의 行歷에 관련된되는 事項들을 간단히 정리하여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4> 佐理功臣의 人的事項

番號	等級	功臣名	生沒年	本貫	號	諡號	君號	備考
01	1等	申叔舟	1417-1475	高靈	保閑齋	文忠	高靈府院君	
02		韓明滄	1415-1487	淸州	狎鷗亭	忠成	上黨府院君	
03		崔恒	1409-1417	朔寧	太虛亭	文靖	寧城府院君	
04		洪允成	1425-1475	懷仁	領海	威平	仁山府院君	
05		曹錫文	1413-1477	昌寧	-	忠簡	昌寧府院君	
06		鄭顯祖	1440-1504	河東	-	褊玓	河城府院君	
07		尹子雲	1416-1478	茂松	樂閑齋	文憲	茂松府院君	
08		金國光	1415-1480	光山	瑞石	丁靖	光山府院君	
09		權域	1423-1487	安東	-	襄平	花川君	
10	2等	[李] 婷	1454-1489	全州	風月亭	孝文	月山大君	
11		[李] 琛	1430-1479	全州	-	孝禧	密城君	
12		鄭麟趾	1396-1478	河東	學易齋	文成	河東府院君	
13		鄭昌孫	1402-1487	東萊	-	忠貞	蓬原府院君	
14		具致寬	1406-1470	綾城	-	忠烈	綾城府院君	
15		沈滄	1418-1493	青松	-	恭肅	青松府院君	

122) 功臣都監 編,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 筆寫本, [漢城]: [功臣都監], [成化 8(成宗 3, 1472)].

… 一等/ 申叔舟 韓明滄 崔恒/ 洪允成 曹錫文 鄭顯祖/ 尹子雲 金國光 權域/ 二等/ [李]婷 [李]琛 鄭麟趾/ 鄭昌孫 具致寬 沈滄/ 金頤 韓伯倫 尹士昕/ 韓繼美 韓繼禧 宋文琳/ 三等/ 成奉祖 盧思慎 姜希孟/ 任元濬 朴仲善 李克培/ 洪應 徐居正 梁誠之/ 金謙光 康袞 慎承善/ 李克增 韓繼純 鄭孝常/ 尹繼謙 韓致亨 李崇元/ 四等/ 金守溫 李石亨 尹弼商/ 許琮 黃孝源 柳洙/ 魚有沼 咸禹治 李埏/ 金吉通 宣炯 禹貢/ 金嶠 吳伯昌 朴居謙/ 李鐵堅 韓致仁 具文信/ 李淑琦 鄭蘭宗 鄭崇祖/ 李承召 韓埴 韓致義/ 金壽寧 韓致禮 韓嶷/ 李永垠 李克敬 李壽男/ [李]鉉 申澣 金順命/ 柳輕 沈澣 申浚 …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敎書>에 관한 研究

16	金 碩	1422-1478	安東	雙谷	文靖	上洛府院君
17	韓伯倫	1427-1474	淸州	毅菴	襄惠	淸川府院君
18	尹士昕	1422-1485	坡平	-	襄平	坡川府院君
19	韓繼美	1421-1471	淸州	-	文襄	西原府院君
20	韓繼禧	1423-1482	淸州	-	文靖	西原君
21	宋文琳	1409-1476	礪山	-	恭武	礪山君
22	3等 成奉祖	1401-1474	昌寧	-	襄靖	昌城府院君
23	盧思愼	1427-1498	交河	葆真齋	文匡	宣城府院君
24	姜希孟	1424-1483	晋州	私淑齋	文良	晋山君
25	任元濬	1423-1500	豐川	四友堂	胡文	西河君
26	朴仲善	1435-1481	順天	-	昭襄	宣城君
27	李克培	1422-1495	廣州	牛峰	翼平	廣陵府院君
28	洪 應	1428-1492	南陽	休休堂	忠貞	益城府院君
29	徐居正	1420-1488	達城	四佳亭	文忠	達城君
30	梁誠之	1415-1482	南原	訥齋·松坡	文襄	南原君
31	金謙光	1419-1490	光山	-	恭安	光成君
32	康 袞	1411-1484	信川	-	恭襄	信川君
33	愼承善	1436-1502	居昌	仕止堂	章成	居昌府院君
34	李克增	1431-1494	廣州	-	恭長	廣川君
35	韓繼純	1431-1486	淸州	-	襄平	淸平君
36	鄭孝常	1432-1481	慶州	-	齊安	鷄林君
37	尹繼謙	1442-1483	坡平	-	恭襄	鈴平君
38	韓致亨	1434-1502	淸州	-	質景	淸城府院君
39	李崇元	1428-1491	延安	-	忠簡	延原君
40	4等 金守溫	1410-1481	永同	乖崖·拭疣	文平	永山府院君
41	李石亨	1415-1477	延安	樗軒	文康	延城府院君
42	尹弼商	1427-1504	坡平	-	-	坡平府院君
43	許 琮	1434-1494	陽川	尙友堂	忠貞	陽川君
44	黃孝源	1414-1481	尙州	少原	襄平	商山君
45	柳 洙	1415-1481	文化	-	安襄	文城君
46	魚有沼	1434-1489	忠州	-	貞莊	藥城君
47	咸禹治	1408-1479	江陵	松潭	平襄	東平君
48	李 塤	1429-1481	韓山	賭翁	安昭	韓城君
49	金吉通	1408-1473	淸風	月川	文平	月川君
50	宣 炯	1434-1479	寶城	-	平壤	楡城君
51	禹 貢	1415-1473	丹陽	-	襄莊	丹城君
52	金 嶠	1428-1480	善山	-	養襄	善山君
53	吳伯昌	1415-1473	興陽	謙文齋	憲平	興原君
54	朴居謙	1413-1481	密陽	-	平簡	密山君

55	李鐵堅	1435-1496	慶州	-	襄平	月城君
56	韓致仁	1421-1477	淸州	-	恭安	西城君
57	具文信	1415-1485	綾城	-	襄平	綾原君
58	李淑琦	1429-1489	延安	-	靖襄	延安君
59	鄭蘭宗	1433-1489	東萊	虛白堂	翼惠	東萊君
60	鄭崇祖	1442-1503	河東	三省齋	莊靖	河南府院君
61	李承召	1422-1484	陽城	三灘	文簡	陽城君
62	韓 塚	1447-1522	淸州	-	-	琅城君
63	韓致義	1440-1473	淸州	-	章悼	淸陽君
64	金壽寧	1436-1473	安東	素養堂	文悼	福昌君
65	韓致禮	1441-1499	淸州	-	莊簡	西陵府院君
66	韓 嶼	1443-1485	淸州	-	恭悼	西原君
67	李永垠	1434-1471	韓山	-	丁悼	韓山君
68	李克墩	1435-1503	廣州	-	翼平	廣原君
69	李壽男	1439-1471	全義	-	良簡	全山君
70	[李] 鉉	未詳-未詳	全州	-	昭平	湖山君
71	申 澣	1442-1482	高靈	-	-	高川君
72	金順命	1435-1487	淸風	-	恭襄	淸陵君
73	柳 輕	未詳-未詳	文化	-	平簡	文陽君
74	沈 瀚	1436-1482	青松	-	夷敬	靑川君
75	申 浚	1444-1509	高靈	懶軒	昭安	高陽府院君

이들 75인 功臣들은 端宗·世祖·睿宗·成宗 등 朝鮮朝 전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방면에 걸쳐 한 시대를 風靡한 인물들이었다.

### 3.3.5 功臣敎書의 賜給 時期

본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敎書>에는 좌리공신의 등급별 명단에 이어서 “成化八年六月日”<sup>123)</sup>의 본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敎書>를 사급한 시기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본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敎書>가 인산부원군에게 賜給된 시기는 成宗 3年(1472) 6月 某日이다.

123) 功臣都監 編,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敎書>, 筆寫本, [漢城]: [功臣都監], [成化 8(成宗 3, 1472)].

… 成化八年六月 日.

### 3.3.6 功臣教書에 安印된 國璽

본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의 頭部인 “教/ 輸忠協策靖難佐翼純誠明亮經濟弘化佐/ 理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 領經筵事仁山府院君洪允成”과 尾部인 “成化八年六月 日”의 위에는 ‘朝鮮/國王/之印’이 安印되어 있다.

## 4. 結 論

이상에서 仁山府院君 洪允成(1425-1475)의 생애와 功臣勳 및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에 관하여 고찰한 바, 이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의 功臣制度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에 점차 제도화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 확립되었던 것이다.

(2) 佐理功臣은 성종 2년(1471)에 성종이 왕위에 올라 자신을 추대하여 자신을 잘 보좌하고 정치를 잘 하도록 한 데에 공을 세운 75인의 臣民들에게 내려진 功臣號이며,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는 좌리공신 1등에게 사급된 功臣教書이다.

(3) 인산부원군은 조선시대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懷仁이고 初名은 禹成이며, 字는 守翁이다. 號는 傾海 혹은 領海이고 諡號는 威平이다. 그는 세조를 도와 癸酉靖難에 참여한 공로로 단종 3년(1455) 정월에 靖難功臣 제2등인 ‘輸忠協策靖難功臣’에 책훈된 바 있고 단종을 退位시키고 세조의 즉위에 조력한 공로로 세조 4년(1458) 6월에 左翼功臣 제3등인 ‘推忠左翼功臣’에 녹훈된 바 있으며, 성종을 보필하여 정치를 잘하도록 하는데 조력한 공로로 성종 2년(1471) 3월에 佐理功臣 제1등인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에 녹훈된 바 있다.

(4) 인산부원군의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는 忠北 清州市 興德區

社稷 2洞 732-11의 金在泳 선생에 의해 所藏·管理되고 있으며, 성종 3년(1472) 6월에 人山부원군에게 사급된 1축의 공신교서이다.

(5) 人山부원군의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에는 頭部에 功臣號와 受給者의 職銜 및 姓名이 기록되어 있고 本文에는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으로 錄勳된 人山부원군의 愛國觀과 功績에 대한 致辭와 褒賞規定 및 等級別 功臣의 名單이 기록되어 있으며, 尾部에는 본 功臣教書를 賜給한 時期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두부와 미부에는 각각 ‘朝鮮國王之印’의 國璽가 安印되어 있다.

(6) 人山부원군의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는 세로 28.0cm 가로 150.0cm의 丹黃色의 生絹에 63행으로 墨書되어 있으며, 紙料로 사용된 丹黃色 生絹은 絹布에 黃漆染色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裝訂은 원래 卷軸裝의 형태였을 것이나 현재 上下左右 가장자리의 절단으로 인하여 軸은 失傳되어 전래되지 않으며, 따라서 軸材가 어떤 材料였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물을 뿌린 얼룩으로 인해 字劃을 알아 볼 수 없는 곳이 몇 곳에 있기는 하나, 보존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7) 현재 學界에 보고된 좌리공신교서가 좌리공신 제3등인 延原君 李崇元(1428-1491)에게 사급된 <純誠明亮佐理功臣教書>(보물 제651-2호) 1축과 좌리공신 제4등인 月川君 金吉通(1408-1473)에게 사급된 <純誠佐理功臣教書>(보물 제716호) 1축만이 전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仁山府院君의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는 좌리공신 제1등에 해당되므로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참고문헌>

功臣都監 編.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 筆寫本. [漢城]: [功臣都監], [成化 8(成宗 3, 1472)]. 金在泳 所藏本.

功臣都監 編. 『純誠佐理功臣錄券』. [漢城]: [功臣都監], [成化 8(成宗 3, 1472)].

忠北大學校博物館 所藏本.

南陽洪氏益山君派衿川公宗會 編. 『南陽洪氏益山君派衿川公世譜』. 大田: 回想社, 2006.

南陽洪氏鶴谷派宗親會 編. 『南陽洪氏文獻錄』. 唐津: 美文出版社, 1992

春秋館 編. 『文宗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春秋館 編. 『端宗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春秋館 編. 『世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春秋館 編. 『睿宗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春秋館 編. 『成宗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朴文烈. “月川君 金吉通 『純誠佐理功臣錄券』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31輯(2005. 9).

國家記錄遺產: <<http://www.memorykorea.go.kr/>>.

